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예진 박주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다섯 개 대학 4학년 재학생 중 취업을 준비 중이며,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218명(남 70명, 여 148명)이었다. 연구문제 검증에 위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살생각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한 결과,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 자살생각, 취업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 본 논문은 홍예진(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박주희,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02)2123-3147, E-mail: juheepark@yonsei.ac.kr

서론

최근 전 세계 청년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세계보건기구(2014)의 발표가 청년자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대 사망자의 약 43%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통계청, 2014). 특히 대학생에 해당하는 20-24세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18.3명으로 15~19세 청소년 (10만 명당 8.3명)에 비하여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처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젊은 층 특히 대학생의 자살은 개인과 가족, 주위 사람들의 고통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의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살로 인한 죽음은 질병, 사고에 비하여 예방 가능성이 높은 사망원인이기 때문에 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살 관련 선행연구들은 자살로 사망에 이른 대상을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없다는 한계점 때문에 자살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같은 요인에 주목하여 왔다(Reynolds, 1991b). 자살시도가 실제로 자살을 실행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반면, 자살생각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된 사고로서 자살에 대한 동기, 의지, 계획과 관련된 사고를 의미한다(Reynolds, 1991a). 특히 자살생각은 모든 자살행동의 첫 시작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자살 관련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개인과 경험하지 않은 개인을 위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은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하여 미래에 자살시도 또는 자살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Drum, Brownson, Burton, & Smith, 2009; Miranda, Jaeger, Restifo, & Shaffer, 2014), 자살생각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간에는 인지적, 유전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바(Cole et al., 2015; Monkul et al., 2007; Pompili et al., 2008) 있어, 자살 예방을 위한 연구에서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설명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부터 환경적 요인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강조하여 왔다. 선행연구 결과(Kim et al., 2014; Wang, Wong, Tran, Nyutu, & Spears, 2013)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과 관련된 취약성과 같은 잠재적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위험요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Ciesla & Roberts, 2007; Rood, Roelofs, Bogels, & Meesters, 2012) 자살생각 위험요인으로서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다수의 연구들이 생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었는데(Wilburn & Smith, 2005; Yang & Clum, 1994), 생활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경제적 어려움 등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최근에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노인의 경제적 스트레스, 성 소수자의 소수자 스트레스와 같이 연구 대상 집단이 취약성을 보이는 특정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조옥선, 백진아, 2014; 최정민, 김신열, 2014; Baams, Grossman, & Russell, 2015). 이같이 대상 집단이 경험하는 특정 스트레스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 관련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구체적인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 대상인 대학생이 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김범준, 2011; 김영상, 2003), 진로 및 취업 관련 스트레스가 주요한 스트레스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에 대한 준비를 촉진한다는 점(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한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자살생각과 같은 심각한 부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김민경, 2013).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취업정보 커뮤니티에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취업뽀개기, 2011). 경험적 연구에서도 초기 성인기의 실업이나 고용불안정과 같은 취업 관련 요인이 자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김재원, 권순만, 2014; Milner et al., 2014; Reneflot & Evensen, 2014). 또한,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김민경, 2013; 윤명숙, 이효선, 2012)를 살펴보면, 미취업에 대한 불안감, 취업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이러한 불안감과 낮은 자신감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정서 등으로 인하여 자살생각이 많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서인균과 이연실(2014)의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의 불일치는 연구 대상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서인균과 이연실의 연구에서는 1~3학년 대학생이 연구대상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연구시점 당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상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대한 취업 스트레스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에 초점을 두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의 영향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자들은 자살생각의 감소와 관련된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이혜선 외, 2013; Gooding, Sheehy, & Tarrier, 2013). 사회적 지지란 개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평가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 등 여러 형태의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Cohen & Syme, 1985). 선행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 자원이 많으며, 긍정적 상호작용과 높은 자기존중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Joiner(2009)는 자살의 대인관계-심리 이론(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공되는 소속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자살생각 감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이 여러 선행연구(Ploskonka & Servaty-Seib, 2014; Prinstein, Boergers, Spirito, Little, & Rapentine, 2000; Van Orden, Cukrowicz, Witte, & Joiner, 2012)를 통해 지지된 바 있어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완충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강석화, 2012; Kleiman, Riskind, & Schaefer, 2014)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이 취업 실패, 경제적 부담 등을 포함한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경우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Kleiman, Riskind, Stange, Hamilton, & Alloy, 2014). 전신현(2012)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진로, 학업, 경제적 문제를 포함한 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밝힌 바 있다. 비록 이상의 연구들이 취업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반적으로 생활스트레스의 완충효과를 검증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충할 수 있음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같은 외적요인의 변화에 민감한 취업 시장에 대비하며 경험하게 되는 취업 스트레스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의 외적 자원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 자살 관련 문제를 경험한 대학생을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그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때 자살생각에 있어 성차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Bronisch, 1995; Jalles & Andresen,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2014)와 경제적 수준이 취업 스트레스의 수준(황성원, 1998; Milner et al., 2014)과 자살생각 (Turvey, Stromquist, Kelly, Zwerling, & Merchant, 2002)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별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통제변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준비 중인 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충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5개 대학 4학년 학생 218명이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조건은 자료수집 당시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었다. 자료수집은 취업정보센터와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생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강의를 통한 자료 수집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취업을 준비한 기간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취업 준비기간이 0개월이라고 응답한 설문지는 제외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총 478부 중 40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3.7%였으나, 이 중 자살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174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두 개 이상의 척도에서 동일한 번호에 일괄적으로 응답한 자료, 그리고 한 개 척도 이상에서 전체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자료 등 불성실한 응답으로 자료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8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 중 발생한 결측치는 평균대체법으로 처리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으로 포함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비율은 남학생 70명 (32.1%), 여학생 148명(67.9%)으로 여학생이 두 배 정도 많았다. 취업 준비기간은 평균 약 4개

월 23일이었으며,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150명(68.8%), 이공계열 42명(19.3%), 예체능계열 26명(11.9%) 순이었다. 본 연구 대상의 주관적으로 보고한 가정경제 수준은 상 1명(0.5%), 중상 36명(16.5%), 중 130명(59.6%), 중하 42명(19.3%), 하 9명(4.1%)이었다.

측정도구

자살생각

연구대상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91a)가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인용 자살생각척도(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응답자로 하여금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자살생각을 경험하였는가를 '전혀 한적 없음(0점)'에서 '거의 매일(6점)'까지의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자살할지 생각했다', '기회가 있었다면 자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0점~1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자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척도의 합산점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25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취업 스트레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향수(2010)가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써 취업 스트레스를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 문항(5, 12)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있다.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경험하는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 취업 관련 정보의 부족, 목표로 하는 직종과 전공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을 측정하며 문항의 예는 '취업을 위한 준비가 많아 힘이 든다' 등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업 스트레스의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사회적 지지

연구대상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윤혜정(1993)이 수정한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선생님 등 5개의 사회적 지지원으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서는 질문지의 지시사항에 가족, 친구, 연인, 중요한 타인 등을 모두 포함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원 척도에서는 미래형과 현재형이 혼합되어 있는 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두 현재형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애정, 관심, 평가, 조언, 실제적 도움 등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문항의 예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나의 일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등이 있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5점~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친구, 기타 중요한 타인 등의 사회적 지지망으로부터 정서적, 자존감, 정보적, 물질적 지지를 충분히 얻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우선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기초 분석으로서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성별, 경제적 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한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조절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종속 변인인 자살생각에 대하여 1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성별, 경제적 수준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의 자살생각, 취업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였으며, 각 변인의 점수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측정 변인의 기술적 통계 (N=218)

	점수범위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자살생각	1~103	25	14.59	19.57
취업 스트레스	26~94	20	63.18	14.93
사회적 지지	50~125	25	93.25	15.81

변인 간 상관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기초 분석으로서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N=218)

	1	2	3
1. 자살생각	-		
2. 취업 스트레스	.29**	-	
3. 사회적 지지	-.33**	-.21*	-

* $p < .05$. ** $p < .01$.

중다회귀분석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공차한계는 .84~.93, VIF는 1.07~1.19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3> 취업 준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218)

측정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β	β
성별 ^a		-.08	-.04
경제적 수준		.00	.11
취업 스트레스			.26***
사회적 지지			-.29***
R^2		.01	.17***
ΔR^2			.16***
F		.67	11.12***

^a더미변수, 남자=0, 여자=1

*** $p < .001$.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인인 성별, 경제적 수준과 함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예측변인으로 투입한 전체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 11.12, p < .001$).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투입된 통제변인인 성별, 경제적 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투입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beta = .26, p < .001$), 자살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beta = -.29, p < .001$), 자살생각을 덜 자주 하는 경향이 있었다.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인인 성별과 경제적 수준은 자살생각 총 변량의 1%를 설명하였으며, 2단계에 투입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총 변량의 16%를 설명하여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변인들은 자살생각의 총 17%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취업 준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N = 218)

측정변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β
성별 ^a		-.08	-.04	-.04
경제적 수준		.00	.11	.11
취업 스트레스			.26 ^{***}	.26 ^{***}
사회적 지지			-.29 ^{***}	-.29 ^{***}
취업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01
R^2		.01	.17 ^{***}	.17 ^{***}
ΔR^2			.16 ^{***}	.00
F		.66	11.12 ^{***}	8.86 ^{***}

^a더미변수, 남자=0, 여자=1

^{***} $p < .001$.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3단계에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살생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들을 논의하고,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에 앞서 통제 변인으로 포함된 성별과 경제적 수준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이 자살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Bronisch, 1995), 이와 동시에 취업 또는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에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Garcy & Vagero, 2013; Jalles & Anderson, 2014)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어려움과 근접할 것으로 추측되는 남녀 취업 준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자살생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각의 성차가 취업 스트레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통제변인인 경제적 수준 역시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약 95%가 경제적 수준이 중간 정도라 응답함에 따라 그 영향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대상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고르게 포함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바 있다(강정규, 전상남, 신학진, 2013).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에 경제적 수준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심용출, 나동석, 2012; 최윤정, 2012)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설명력이 17%로 크지 않았는데, 이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의 작용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교육 지원 또는 내일배움카드와 같은 구직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등 제도적인 지원이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살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한 생각을 더 빈번히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민경, 2013; 서인균, 김승희, 2012).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미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는 자신감 저하, 집중력 저하와 대인관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장애, 두통 등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백명화, 2012), 그리고 우울(전혜옥, 2014), 불안(박미진 외, 2009) 등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 증상과 부정적인 정서, 미취업 상태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경제적 압박, 소속에 대한 불안감, 성취경험의 부족 등이 개인의 대처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살생각을 하는 개인의 경우 부정적 인지 양식을 가지거나 부정적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고하는 반추의 인지적 특성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Cole et al., 2015)를 고려할 때, 같은 취업관련 상황이라도 자살생각 경험이 없는 대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손상들이 다시 취업 스트레스의 영향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적 연결로

자살생각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는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개입이 자살생각의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상담현장과 학교의 차원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담현장에서 취업 준비 대학생을 상담할 때 취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입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이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게 초점을 두어, 이들이 취업 스트레스 사건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일반 대학생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담자가 상담적 개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취업과 관련하여 내담자가 중립적인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떠올림으로써 지나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가 대학생이 취업 준비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강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대학생의 취업과 관련한 자신감을 높이고 취업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취업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은 학교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며(최현석, 이영선, 하정철, 2011), 취업 준비도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취업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최승혜, 이해영, 2013). 국내 대다수의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 상담 서비스,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제도 등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자신이 필요한 취업 준비 단계에 맞추어 활용하는 것이 취업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취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대학에서 학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박가열, 2009). 고학년은 취업 준비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의 면접, 이력서 작성 방법과 같은 구직기술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반면, 저학년의 경우 인턴십, 해외 취업 준비, 기초직무능력과 같이 장기간의 준비가 요구되는 직업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4학년의 대학생에게는 실제적이고 바로 적용 가능한 취업과 관련한 정보, 기술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선후배간 연계를 통하여 관련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정보 등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업 스트레스 경감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저학년에게는 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마련,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자주 할 가능성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충분한 애정, 신뢰, 평가, 정보, 물질 등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관련한 생각을 덜 자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살의 예방과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라채린, 이창진, 서주연, 최지희, 유명순, 2013, Gooding et al., 2013; Ploskonka & Servaty-Seib, 2014).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소속감을 증가시키고(Ploskonka & Servaty-Seib, 2014),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며(Hamarat et al., 2001; Yuan, 2015),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Kissane & McLaren, 2006) 자살생각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기 직전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통한 소속감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은 자살생각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고,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므로(Hirsch & Barton, 2011; Park, Cho, & Moon, 2010), 이로 인해 삶에 대한 통제감이 증가되고, 절망감에 빠지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2015)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지지원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한 관계 속에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친밀한 대인관계 유지를 통해 부족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지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감, 의사소통 방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는 것 역시 사회적 지지 강화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하여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정운(2004)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이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적응과 자살생각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경우 아동에 비하여 또래 관계 이외의 다양한 대인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대처방식 등의 교육이 자살생각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Chang, 2002). 실

제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행동을 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등을 학습하도록 한 후 1년 뒤 추후 조사한 결과 자살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McLeavey, Daly, Ludgate, & Murray, 1994) 사회적 기술 교육을 통한 사회성 증진 훈련이 자살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상에서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유지가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Ozkaya, & LaRose, 2014; Ellison, Vitak, Steinfield, Gray, & Lampe, 2011). Ellison 외(2011)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와의 소셜네트워크 체계(SNS)를 통한 상호작용이 자신의 사회적 자원으로 지각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유지할 위한 방법으로 SNS를 활용하는 방안도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실시간 대화 형식의 SNS를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날 수 없는 중요한 타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 또는 도움을 얻는 등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하여 SNS를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교 내의 상담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자살관련문제를 경험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지지 강화에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살생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상황이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등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서로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전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대학생을 선별하여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학 또는 지역 사회에서 대학생 또래 간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후배간의 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이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효과를 가지는가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충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사회적 지지의 내용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 지지의 영향과 같이 특정 스트레스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에 초점을 두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어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검증하였다(Barnett, de Baca, Jordan, Tilley, & Ellis, 2015; Chang, Leach, & Anderman, 2015). 이는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수준과는 별개로 특정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지각하는 지지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전반적인 지지수준이 높더라도 취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그 완충효과가 크지 않아 본 연구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에 있어 대인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보다 사회, 기업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제도적 지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취업 시장은 사회·경제적 변화나 기업의 채용 정책 등과 같은 대인관계를 넘어선 더 큰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현금카드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업준비에 대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으므로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인관계로부터의 지지가 아닌 정부, 기업으로부터의 직접적 지원이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과정에서는 성별과 경제적 수준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뿐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그 밖의 변인들은 통제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유전적 요인, 학대 경험, 인지적 요인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한다면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을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는 지지로 대인관계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은 국가의 취업관련 정책이나 기업의 채용 정책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이 취업 스트레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취업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연구한다면 취업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는 지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4학년 이상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실제 취업을 시도하고 있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자살위험이 있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설명변인의 영향을 살펴봄에 따라 설명변인이 자살생각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히 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과 관련한 스트레스에 초점을 두어 그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포함하는 생활스트레스에 초점을 둔 연구의 경우(Wilburn & Smith, 2005; Yang & Clum, 1994) 각 스트레스원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며, 구체적인 자살생각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결과는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고 취업 준비 중인 대학생의 자살생각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추후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살생각의 경감이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석화 (2012).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정규, 전상남, 신학진 (2013). 일부 대학생의 자기완벽성, 우울, 절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 527-536.
- 김민경 (201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및 문제음주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 시설 환경, 11(2), 29-38.
- 김범준 (2011). 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불행 관련 사건들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115-135.
- 김영상 (2003).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원, 권순만 (2014). 지역별 고용불안정이 청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30(2), 117-141.
- 김향수 (2010). 취업 스트레스 척도개발과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 라채린, 이창진, 서주연, 최지희, 유명순 (2013).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위험 및 완화요인을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0(1), 1-11.
- 박가열 (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417-435.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명화 (2012). 간호 대학생의 학업, 취업 스트레스, 신체증상 및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13(3·4), 131-148.
- 서인균, 김승희 (2012).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14, 81-99.
- 서인균, 이연실 (201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 대한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남, 녀 대학생 비교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6(3), 25-53.
- 세계보건기구 (2014).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Retrieved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31056/1/9789241564779_eng.pdf?ua=1&ua=1
- 심용출, 나동석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귀인성향의 매개효과와 대학생활적응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6), 203-226.
- 윤명숙, 이호선 (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 윤혜정 (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2004). 자살생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문제행동, 자기존중감, 사회성기술, 학교적응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1), 163-175.
- 이혜선, 김성연, 박일, 강여정, 이지영, 권정혜 (2012). 대학생의 자살관련생각과 행동의 원인 및 자살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03-728.
- 전신현 (2012).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소셜네트워크의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와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67, 5-25.
- 전혜옥 (201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성인애착, 자기표현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7), 312-323.
- 조옥선, 백진아 (2014).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집단따돌림 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8(2), 233-244.
- 최승혜, 이해영 (2013).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2), 808-816.
- 최윤정(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한

- 국청소년연구, 66, 77-104.
- 최정민, 김신열 (2014). 노인이 인지한 소득불평등과 자살생각 관계: 경제적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743-758.
- 최현석, 이영선, 하정철 (2011).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취업 스트레스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2), 313-322.
- 취업뽀개기 (2011.). 구직자 64.2% “취업 스트레스로 자살충동 경험”.
<http://cafe.daum.net/breakjob/8zr/175>에서 검색.
- 통계청 (2014). 2013년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자살률.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성원 (1998).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n.d.). *Stress management: How to strengthen your social support network*. Retrieved from <http://www.apa.org/helpcenter/emotional-support.aspx>.
- Baams, L., Grossman, A. H., & Russell, S. T. (2015). Minority stress and mechanisms of risk fo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51(5), 688-696.
- Barnett, M. A., de Baca, T. C., Jordan, A., Tilley, E., & Ellis, B. J. (2015). Associations among child perceptions of parenting support,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Child & Youth Care Forum*, 44(1), 17-32.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onisch, T. (1995). Der suizid. (이재원 역. 자살). 서울: 이끌리오.
- Chang, E. C. (2002). Predicting suicide ideation in an adolescent population: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problem solving as a moderator and a mediat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279-1291.
- Chang, Y., Leach, N., & Anderman, E. M. (2015). The role of perceived autonomy support in principals' affectiv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8(2), 1-22.
- Ciesla, J. A., & Roberts, J. E. (2007). Rumination, negative cognition, and their interactive effects on depressed mood. *Emotion*, 7(3), 555-56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3-22). Orlando, FL: Academic Press.

- Cole, A. B., Wingate, L. R., Tucker, R. P., Rhoades-Kerswill, S., O'Keefe, V. M., & Hollingsworth, D. W. (2015). The differential impact of brooding and refle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uicide ide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70-173.
- Drum, D. J., Brownson, C., Burton D. A., & Smith, S. E. (2009). New data on the nature of suicidal crises in college students: Shifting the paradigm.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3), 213-222.
- Ellison, N. B., Vitak, J., Steinfield, C., Gray, R., & Lampe, C. (2011). Negotiating privacy concerns and social capital needs in a social media environment.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4), 855-870.
- Garcy, A. M., & Vågerö, D. (2013). Unemployment and suicide during and after a deep recession: A longitudinal study of 3.4 million Swedish men and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3*(6), 1031-1038.
- Gooding, P. A., Sheehy, K., & Tarrier, N. (2013). Perceived stops to suicidal thoughts, plans, and actions in persons experiencing psycho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4*(4), 273-281.
- Hamarat, E., Thompson, D., Zabrocky, K. M., Steele, D., Matheny, K. B., & Aysan, F. (2001). Perceived stress and coping resource availability as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Experimental Aging Research, 27*(2), 181-196.
- Hirsch, J. K., & Barton, A. L. (2011). Positive social support, negative social exchanges, and suicid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9*(5), 393-398.
- Jalles, J. T., & Andresen, M. A. (2014). Suicide and unemployment: A panel analysis of Canadian provinc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8*(1), 14-27. doi: 10.1080/13811118.2013.801812
- Joiner, T. (2009).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J. M., Stewart, R., Kim, S. W., Kang, H. J., Kim, S. Y., Lee, J. Y., ... & Yoon, J. S. (2014). Interactions between a serotonin transporter gene, life events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Korean el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60*, 14-20.
- Kissane, M., & McLaren, S. (2006). Sense of belonging as a predictor of reasons for living in older adults. *Death Studies, 30*(3), 243-258.
- Kleiman, E. M., Riskind, J. H., & Schaefer, K. E. (2014). Social support and positive events

- as suicide resiliency factors: Examination of synergistic buffering effect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8(2), 144-155.
- Kleiman, E. M., Riskind, J. H., Stange, J. P., Hamilton, J. L., & Alloy, L. B. (2014). Cognitive and interpersonal vulnerability to suicidal ideation: A weakest link approach. *Behavior Therapy*, 45(6), 778-790.
- McLeavey, B. C., Daly, R. J., Ludgate, J. W., & Murray, C. M. (1994).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in the treatment of self-poisoning pati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4), 382-394.
- Milner, A., Page, A., Morrell, S., Hobbs, C., Carter, G., Dudley, M., ... & Taylor, R. (2014). The effects of involuntary job loss on suicide and suicide attempts among young adults: Evidence from a matched case-control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8(4), 333-340. doi: 10.1177/0004867414521502
- Miranda, R., Jaegere, E., Restifo, K., & Shaffer, D. (2014). Longitudinal follow up study of adolescents who report a suicide attempt: Aspects of suicidal behavior that increase risk of a future attempt. *Depression and Anxiety*, 31(1), 19-26.
- Monkul, E. S., Hatch, J. P., Nicoletti, M. A., Spence, S., Brambilla, P., Lacerda, A. L., ... & Soares, J. C. (2007). Fronto-limbic brain structures in suicidal and non-suicidal female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Molecular Psychiatry*, 12(4), 360-366.
- Oh, H. J., Ozkaya, E., & LaRose, R. (2014). How does online social networking enhance life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s among online supportive interaction, affect, perceived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0, 69-78.
- Park, S. M., Cho, S. I., & Moon, S. S.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ideation: Role of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9(4), 389-397.
- Ploskonka, R. A., & Servaty-Seib, H. L. (2014). Belongingness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3(2), 81-87.
- Pompili, M., Rihmer, Z., Akiskal, H. S., Innamorati, M., Iliceto, P., Akiskal, K. K., ... & Girardi, P. (2008). Temperament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suicidal and nonsuicidal psychiatric inpatients. *Psychopathology*, 41(5), 313-321.
- Prinstein, M., Boergers, J., Spirito, A., Little, T. D., & Rapentine, W. L. (2000). Peer functioning, family dysfunction,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a risk factor model for adolescent inpatients suicidal ideation sever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29, 392 - 405.

- Reneflot, A., & Evensen, M. (2014).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young adults in the Nordic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3(1), 3-15.
- Reynolds, W. (1991a). *ASIQ,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orporated.
- Reynolds, W. (1991b).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6(2), 289-307.
- Rood, L., Roelofs, J., Bogels, S. M., & Meesters, C. (2012). Stress-reactive rumination, negative cognitive style, and stressors in relationship to depressive symptoms in non-clinical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4), 414-425.
- Turvey, C., Stromquist, A., Kelly, K., Zwerling, C., & Merchant, J. (2002). Financial loss and suicidal ideation in a rural community sampl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6(5), 373-380. doi: 10.1034/j.1600-0447.2002.02340.x
- Van Orden, K. A., Cukrowicz, K. C., Witte, T. K., & Joiner, T. E. (2012).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Construct validity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Psychological Assessment*, 24(1), 197-215.
- Wang, M. C., Wong, Y. J., Tran, K. K., Nyutu, P. N., & Spears, A. (2013). Reasons for living, social support, and afrocentric worldview: Assessing buffering factors related to Black Americans' suicidal behavior.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7(2), 136-147. doi: 10.1080/13811118.2013.776454
- Wilburn, V. R., & Smith, D. E. (2005). Stress, self-esteem, and suicidal ideation in late adolescents. *Adolescence*, 40(157), 33-45.
- Yang, B., & Clum, G. A. (1994).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problem solving skills predictive of depressive symptom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n Asian student population: A test of a model.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2), 127-139.
- Yuan, H. (2015). Structural social capital, household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The evidence from Beijing, Shanghai and Guangdong-province, China.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18. doi: 10.1007/s10902-015-9622-z

[원고접수일: 2015. 08. 31. / 수정원고접수일: 2015. 10. 20. / 게재결정일: 2015. 11. 10.]

The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senior college students who had ever thought about suicide

Ye Jin Hong Ju Hee Park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job-seek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uicidal ideation in senior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d whether one's social support moderated the relations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8 senior college students(70 men, 148 women), who were seeking a job and had ever thought about suicide at least once, from fiv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o measure the level of suicidal ideation, the Adult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Reynolds, 1991a) was used. The level of job-seeking stress was measured by the Job-Seeking Stress Scale (Kim, 2010).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Scale of Social Support (Park, 1985) transformed by Yoon (1993) was used.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analyzed by using the procedures proposed by Baron and Kenny (1986).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d that the level of job-seeking stress increased suicidal ideation whereas the level of social support decreased suicidal ideation.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was not significant.

Key words: senior college students who had ever thought about suicide, suicidal ideation, job-seeking stress, social support